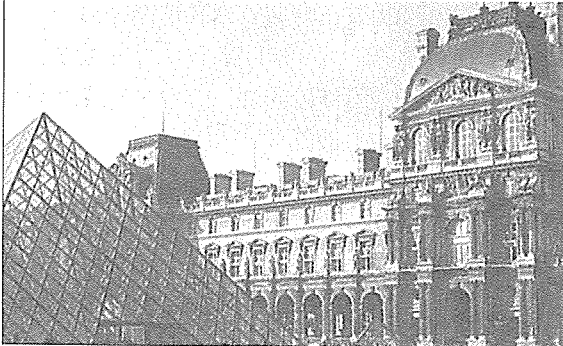


유럽을 다녀와서 (I)



李承權
건설안전기술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전문위원

소련, 白夜(White Night)

말로만 듣던 무서운 共產主義國家, 凍土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大陸! 우리에게 6.25의 피어린 民族相殘과 38線을 그어 分斷의 설움을 오늘까지 있게 한 Soviet Russia, 이 땅 깊숙히 領空을 날고 있다는 감회가 이상하다 못해 전율을 느낀다. 只今時間은 午後 3時가 조금 넘었나 보다. Air France機内 screen을 통하여 航路와 經由地 그리고 高度, 速度, Mileage 등이 狀況進行과 함께 表示된다.

狀況板을 보니 外部溫度는 영하 70度, 高度는 12,300M, 時速은 1,158km이며, 日本 Sapporo, 소련의 南斷 Khabarovsk를 經由하여 Buryat, 西시베리아 Zapadno sibirskaya 上空을 지남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낮이 지금쯤이면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전형적인 오후일께다. 그러나 機窓을 통하여 視野에 들어오는 밖의 모습은 해가진 후 초생달 달빛만이 비치고 있는 그런 어두운 밤같은 모습이다.

White night가 바로 이거구나 싶다. 저 밑에 보이는 어슴프레한 地上의 모습들은 낮은 山, 넓은 平地, 湖, 그리고 얼음과 눈, 말 그대로 凍

土의 大陸, 永遠한 不毛地임을 어둠속에서도 알 수 있다. 소련의 氣候는 흑해 연안과 Afghanistan 周邊, 그리고 中國인접 地域等 이 세 地域에서만 植物이 成長할 수 있는 따뜻한 季節을 지니고 있으며, 北쪽의 거의 모든 地域은 北極 툰드라 氣候 地域이고, 南쪽의 大部分은 한랭하고 매마른 地域이어서 農事가 不可能하며, 나머지는 썩 썩 영하 37度를 밑도는 추위가 계속되는 혹한 지역이란다.

北쪽 地域은 늘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심지어 比較的 南쪽에 위치한 흑해 연안에 있는 Odesa港도 1年中 두달이상 얼음이 얼어 있으며 北西쪽에 있는 Kola penin半島 연안만이 近海를 흐르는 Mexico만류 덕택에 얼음이 얼지 않는 지역이라니 쓸모없는 廣大한 大陸임에 틀림이 없나보다.

金浦空港을 함박눈이 쏟아지는 아침 10時半쯤 離陸하였으니 11時間 後인 밤 9時頃이면 모스크바空港에 Landing할 豫定이란다. 機内 食事 Menu에는 點心食事が 두번이나 적혀있어 印刷錯誤나 다음날 Menu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時差때문이었다. 왜냐하면 Europe地域이

서울보다 8~9時間 더 늦으므로 낮하루가 더 길어졌기 때문이다.

海外 Seminar, 建設安全의 實態 把握을 爲한 見學等 이번이 4번째 海外 나들이 이지만, 氣分 나뻘만큼 어둡속을 10余時間씩 飛行하고 보니 소련을 찾는다는 환희나 마음설레임도 잠시뿐 軍事施設이 散在한 Xhanty manisilsk를 지나 Ural 산맥을 넘어 Syktyvkar를 通過하면서 부터는 피로가 엄습해 왔다. 機內放送에서는 約 30分 後에 Moscow에 機着한다는 Announcement가 나온다.

飛行航路로 보았을 때 東쪽 끝에서 北極中間을 거쳐 西南쪽 끝으로 進行하다 보니 外部의 날씨는 대낮에서 저녁, 그리고 밝은 밤을 지나 다시 어두운 오후로 바뀌면서 10時間이 넘도록 비행했으나, 결국 낮12시를 전후로 달려 現地時間 午後 1時 30分頃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寂寞하리 만큼 고요한 霧圍氣 속의 Moscow는 商店이나 Snack Bar 等の 施設과 製品들은 大體的으로 水準以下라는 先入見이 들었으나 勤務中인 青春男女나 制服에 活步하는 善男善女들은 생각외로 美貌였다. 寫眞이나 T.V에서 보는 덩치 큰 사람들이 아니었고 좁은 얼굴, 작은 체격에 乳兒의 살결처럼 하얗고 보드라운 피부를 지녀 총각이고 처녀고 반할 만큼 감쪽하고 예쁜모습들이었다.

慾心같아서는 소련의 經濟事情으로 보아 딸을 주기는 아깝지만, 며느리는 하나 데려움직하다는 衝動心마저 發動한다. 늘 춥고 어두운 나라, 햇빛을 많이 받지 않아 살결은 백옥처럼 희고 키는 자라지 못했나 보다. 그래서 것처럼 아담하고 감쪽한 美男美女가 만들어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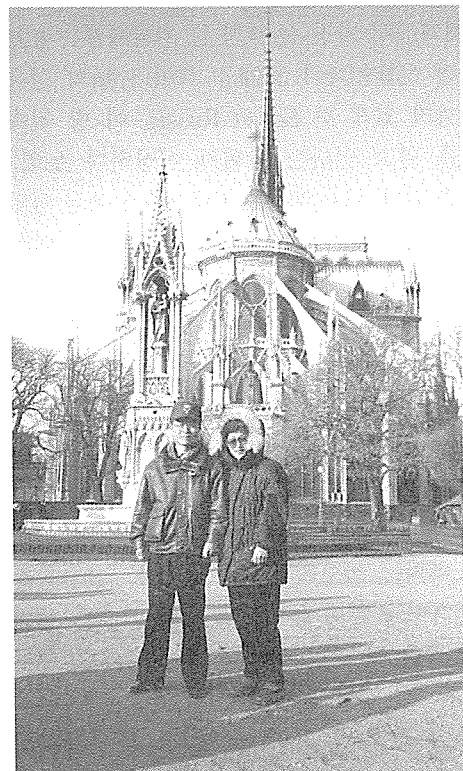
프랑스를 상징하는 代表的인 構造物인 Eiffel tower를 60度 Gear Elevator와 水直 高速Elevator를 두번씩 바뀌타면서 맨꼭대기 展望臺에 到着한 것은 이곳 時間으로 밤10時가 조금 넘어 서였다. 스산한 겨울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파

리의 밤은 세느江 유람선의 찬란한 불빛과 함께 한눈에 들어오는 市街地가 한쪽의 그림같았다.

이 탑은 Canada Toronto의 Metro centre에 세워진 CN放送塔(555.3m) 다음가는 世界 두 번째의 높은 탑으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 1889년 3월 31일 Alexandre Gustave Eiffel의 設計로 完工된 높이 320.75m의 鐵塔으로써 總重量은 8,091톤, 바람의 세기에 따라 탑 꼭대기는 12.7cm 까지 흔들리게 設計되었으며, 1,792개의 階段과 6EA의 Elevator가 設置되어 있다.

파리 세느江邊에 우뚝솟아 있는 이 名物은 파리 世界박람회를 맞아 造形物로 製作되었으며, 총 工事期間은 2年 2個月 2日이 걸렸다고 한다.

동트는 새아침 동녘햇살이 Eiffel Tower 鐵製 Beam사이로 바뀔 때 해를 안고 에펠탑을 觀望하는 것은 한쪽의 그림같은 藝術이며 壯觀이었다. 그러나 에펠탑을 배경으로 證明寫眞을 찍는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부인과 필자

데 逆光이 비추어 확실하게 찍을 수가 없어서 유감스러웠다. 西Europe 最大の 農業國이기도 한 이나라는 Swiss, 獨逸, Italy, Spain 等 周邊 8個國과 國境을 接하고 있고, 英國과는 도버해협을 끼고 마주 보고 있는 Europe의 中心國이자 天惠의 나라이다. 只今の 프랑스는 1,000余年前에 定해졌으며 술한 勢力다툼으로 14세기에는 100年戰爭 等を 치렀으며, 1789년에는 프랑스大革命으로 自由·平等·博愛의 理念을 樹立하였는데, 프랑스는 革命과 思想外에 藝術과 Fashion의 世界的 core로 全世界관광객이 1년내내 盛市를 이룬다고 한다.

파리의 날씨는 한달 중 半이상 비가 오는데 오늘은 맑은 해를 볼 수 있으니 큰 행운이라는 Guide의 說明을 들으면서 세느강변을 따라 노트르담 대성당(Cathedral Notre Dame)으로 向했다.

映畫 ‘노틀담의 꼽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建物은 1163년에 着工하여 182年만인 1345년에 完工되어 800년의 프랑스 歷史를 상징하고 있으며, 全國民의 85%가 카톨릭 신자인 宗教人들이기 때문에 요즘도 日曜日이면 6회씩 미사가 올려진다고 한다.

관광객과 미사를 드리는 信者들로 꽉 들어찬 성당의 분위기는 자연스러웠으며, 老教主들의 엄숙한 執典속에 進行되는 入口쪽 祈禱壇에서는 50cm以上이나 되는 大型촛불을 한두개씩 들고 수십명이 몰려 各者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경건한 마음이 절로 우러났다.

몽마르트르(Montmartre) 언덕에는 무엇이 있을까?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몽마르트르! 그곳은 藝術과 낭만이 깃든 곳, 긴 수염에 人生을 樂天的으로 살아가는 超自我的인 人間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나를 환상에서 벗어나게 했다. 멋쟁이 美術家·藝術家群이라고 보기에 負擔이 가는 先入感이었다. 19세기 末에는 名聲을 날리던 화가들의 集합장소로 쓰였으나 지금은 젊은 處女에서 늙은 할아버지까지 畫板에 自己들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그린 그림은 싼값에 팔기도 하고, 또 관광객의 얼굴을 풍자해서 漫畫로도 그려주는 至極히 平凡한 그림쟁이들이었다. 그곳은 無名畫家들이 모인곳, 藝術家の 距離라고 表現하기 보다는 차라리 市街地 뒷골목의 조그마한 노점그림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우뚝 솟은 사크레쾨르 성당 옆골목을 끼고 내려오는 좁은 길목 양측에는 작은 포도밭과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 포도밭은 프랑스 포도주의 代表的인 名酒, 보르도와 부르고뉴를 生産하는 200年 역사를 지닌 有名한 밭이다.

共同墓地는 우리의 그것과는 달리 동네 한가운데 그리 넓지 않은 塚地안에 石官을 그대로 놓아 두었거나, 다닥다닥 비석이 붙은 채로 세워져 있다. 家族中 한명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傳統때문에 市内에서 쉽게 대할 수 있고 參拜할 수 있다고 한다.

英國의 大英博物館, 로마의 바티칸博物館과 함께 世界굴지의 루브르(Louvre) 博物館을 관람한다는 것은 그 自體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가슴설레는 일이었다. 20萬點以上の 有名美術品만이 陳列되어 있다는 이곳은 本來 Louver 宮殿이었다고 한다. 13世紀 初期에 Phillip Oquist의 성체로 始作하여 王의 住居로 되어 16~17世紀에 擴張, 增築되었으며 蒐集品은 프랑스革命 後 一般에 公開되기 始作했다고 한다. 이 안에는 6 個部로 나뉘어 ① 古代 Orient ② 古代 Egypt ③ 古代 Greece, Rome ④ 회화, ⑤ 조각 ⑥ 工藝, 인상파 美術館과 오렝쥐리美術館도 이 美術館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 保存修復을 爲한 科學研究室과 아틀리에 등이 있으며 소장품은 Leonardo Davinchi의 모나리자, Mane의 풀밭위의 오찬等を 비롯하여 모네, 드가, 피사로, 르노와르, 세잔느, 고흐, 고갱 등의 우수작들이 全館에 걸쳐 진열되어 있는데 作品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웅장한 화폭에 섬세하게

그러져 있고 조각품들도 生動感이 살아넘치는 것 같았다. 이 웅장한 시설안의 많은 作品들을 時間에 쫓겨 仔細하게 둘러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었다. 美術館 内外部 自體가 美術品이며 휴식공간의 유리피라미트와 관광객 수송용 기동식 Elevator, Round stair, 뮤직분수 등은 새로운 建築 Idea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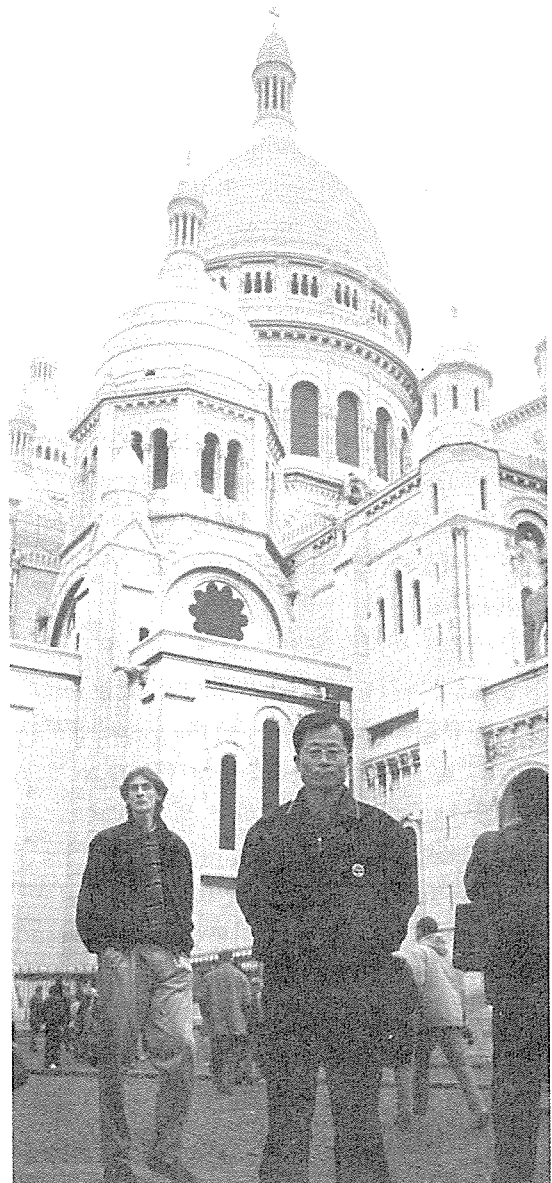
베르사이유 궁전으로 가는 길에 世界에서도 가장 有名하다는 2km의 큰 길 양쪽에는 이름난 상점, 식당, 카페, 여행사 등이 즐비했고, 지하철 13개 노선중 1호선 에트왈역과 콩코드역 사이에 位置하고 있는 상제리제 거리, 콩코드 광장과 학생의 거리 솔본느 大學을 둘러보고 인상과 미술작품을 관람했으며, 19世紀 博物館, 정명훈 오페라 극장, 파리의 중추 리옹驛, 고딕建築의 最高 걸작이라고 불리는 사르트르 大寺院, 나폴레옹이 1806년에 만든 높이 50m의 개선문,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를 닮은 마들렌寺院,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쁘렝땅百貨店 등을 둘러 보았다.

파리에서 서남쪽 23km지점에 위치한 베르사이유(Versailles) 宮殿은 Bus로 約 30分 달려 오후 3時쯤 도착했다. 只今は 겨울이자 年末이라서 관광객이 아주 적은 편이라고 하지만 한 시간을 장사진 줄 속에 서서 기다린 후에야 入場할 수가 있었다. 世界各國에서 모여든 관광객으로 人種市場을 이룬다. 東南亞, 日本等地를 旅行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쉽게 接할 수 있는데 이곳만 하더라도 主로 西洋人들이고 東洋人은 別로 없는 便이다.

이 建物は 바로크 양식의 대궁전으로 1624~1626년에 지은 조그마한 벽돌建物を 1661~1689년에 루이14세가 增築했다고 한다. 正面中央部分은 옛 建物を 保存하여 異質的이지만 庭園쪽은 유럽을 제패한 王에게 어울리는 절도와 변화있는 위용을 갖추어 各國宮殿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本 建物 正門앞에 別館으로 되어 있는 馬廄만 하더라도 서울市廳 만큼이나 크니 절대주의시

대의 主權의 榮華를 가히 짐작케 한다.

室內벽화며 天井의 조각품들은 루브르박물관을 착각하게 하는데, 이 엄청난 規模의 建物を 탄생시키는데에는 르보·망사르가 設計하고, 르노트르가 長大한 정원을 만들었으며, 르브룅이 호화로운 内粧을 맡았다고 한다.



Italy 성베드로 성당앞에서 필자

로마의 聖베드로 광장에 到着한 것은 1992년 1월1일 아침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마침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세계에서 모인 信者들에게 新年 메시지로 강복을 내리고 있는 찰나였으니 참으로 幸運이었다. 빨강색 천을 아래 창틀에 드리우고 흰聖服을 입은 교황이 멀리 두 팔을 든채 강복하는 육성이 Speaker를 타고 聖베드로 광장에 울려 퍼졌다.

30萬名을 수용한다는 이 광장은 멀리서 참배하기 爲하여 찾아온 各國의 신자들로 압축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찼다. 聖베드로 광장은 좌우양쪽으로 폭 240m의 커다란 半圓을 이루고 있고 타원형홀로 列柱廻廊이 둘러져 있으며 그위 Terrace위로는 142聖人の 大理石像들이 도열되어 있는데, 284個의 圓柱들과 88個의 各柱들이 4列縱隊를 이루어 左右 양쪽 Terrace를 떠받치고 있다.

이 광장은 교황 Alexander 7세의 命에 의해 1655~1667年사이의 짧은 時期에 베르니니가 設計하여 建設되었다고 한다.

聖베드로 大聖堂(Basilica di San Pietro)은 326年 Constantinus 皇帝에 의해서 성베드로의 무덤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Silvester 1세에 의해 築造되었다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서 순교당했다고 한다.

現在의 성당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命에 의해 1506年 4月 18日 工事が 始作되었으며 르네상

스의 기라성같은 建築家 大部分이 참여하여 120年의 艱歲月의 工事期間을 거쳐 마침내 1626년에 完工되었다 한다. 30年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건축하는 우리 양식과 비교해 보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성당안으로 들어서니 巨大하고 호화스럽게 장식된 내부에 앞도되어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거대한 공간속에 常識을 超越한 호화의 극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당은 그 길이가 玄關을 包含하여 자그마치 211.5m이며, 天井의 높이가 45.4m요, 地上에서 돔(Dome) 꼭대기의 十字架까지의 높이가 무려 136.5m이며 돔의 직경만도 42m나 된다니 그 장엄한 규모와 當時의 設計者, 建築家들의 스케일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다.

성당내부는 立席式인데 約 60,000名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며, 성당 入口 오른쪽 구석 유리창 위에 자리잡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毗에타(pieta)는 성당안의 수많은 조각품中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作品이라고 한다.

미켈란젤로가 24세때 만든 이 作品은 그가 젊었을 때의 代表作이며 두 人物, 성모마리아와 예수가 완벽한 調和와 균형미를 이루고 있으며, 성모마리아의 슬픔에 잠긴 두터운 신앙심이 表現된 성스러운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젊고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 모습은 年齡에 制限이 없는 母性愛의 崇高함과 아름다움을 充分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계속) (㉞)



베르사이유 궁전 앞에서의 우리일행 (좌로부터 朴武一교수, 필자, 李鍾得박사, 朴奎朗위원 내외, 金榮二위원)